

비복동맥 피판술

한수봉 · 김보현 · 강호정 · 박 진

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

목적 : 하지의 연부조직 결손의 피복을 위한 여러 방법들 중, 아직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임상적 적용이 적은 역행성 비복동맥 피판술의 유용성을 저자의 임상결과를 통해 보고하고자 한다.

대상 및 방법 : 1998년 2월부터 2001년 7월까지 하퇴의 원위 1/3부위, 족관절 주위 및 족부 등에 연부조직 결손이 생겼던 7예에 대하여 역행성 비복동맥 피판술을 이용하여 연부조직 피복을 시행하였고, 그 결과를 후향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.

결과 : 하퇴의 원위 1/3부위, 족관절 주위 및 족부 등에 연부조직 결손이 생겼던 7예에 대하여 비복동맥 피판술을 시행하였다. 원인으로서는, 사고에 의한 경우가 6예였고, 골수염에 의한 경우가 1예였다. 피부 결손 부위로는, 원위 1/3부위가 1예, 족관절 주위가 3예, 족부가 3예였다. 피부 결손의 크기는 3×3 cm에서 12×5 cm까지였다. 7예중 5예는 성공하였고, 2예는 실패하였다. 이식된 피판부위의 통각 및 촉각등의 보호감각은 유지되었다. 실패한 1예에서는 심부근막을 포함하지 않고 거상하였고, 실패한 또 1예에서는 심한 연부조직 손상이 있었다. 실패한 2예는 피판을 제거한 후 부분층 식피술을 시행하였다. 7예 중 4예에서 공여부의 부작용으로 발 외측부의 감각 소실이 있었다. 피판을 거상 시키는데 소요된 시간은 평균 25분이었다.

결론 : 하퇴의 원위 1/3부위, 족관절 주위 및 족부 등의 연부조직 결손에 대한 피복 방법으로 역행성 비복동맥 피판술이 유용한데, 피판의 혈관분포가 비교적 일정하고 피판의 거상이 쉽고, 중요혈관에 손상이 없을 뿐 아니라 특별한 합병증도 없으며 직접 미세 혈관 봉합술이 필요 없는 피판술로 앞으로 많이 사용될 피판술이라 사료된다.